全北學硏究 제13집(2024)
2024년 12월 31일, 71-102쪽
The Journal of Jeonbuk Studies, Vol.13(2024)
https://doi.org/10.59592/JBST.2024.13.3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엄기일*

목 차

1. 머리말
2. 연구사 검토
3. 전북지역 박물관 운영여건
4.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현황 분석
5.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문제점 및 과제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초록

2023년 전국 913개의 박물관 중 공립박물관은 389개관으로 약 42.6%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박물관 환경에서 공립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이에 본 고에서는 다양한 박물관 현황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전북지역 공립박물관들이 어떠한 여건에 놓여있는지 파악해보고, 관련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재정 및 문화기반여건이 비슷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전북지역 박물관을 비교해 보면, 충북지역과 함께 가장 적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 수에서도 경남지역과 함께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지자체당 박물관 수도 전남지역과 함께 가장 적은 지역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1개관당 학예직원수는 중위권, 학예직원 비율은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도 확인되면서 전북지역의 전반적인 박물관 건립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진안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E-mail: uhmki21@korea.kr

이어 전북지역 25개 공립박물관의 현황과 여건에서도 공립박물관 수에서 충북과 함께 전북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관당 학예직원 수와 학예직원 비율 역시 모두 중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열악한 학예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열악한 운영여건에서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인증률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증률을 보이고 있어 주목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학예직원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등 박물관의 핵심역할 수행하는 학예직원이 확충되어야만 공립박물관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역할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공립박물관 1관당 평균 3명의 학예직원이 있어야 하며, 특히 최근 박물관의 역할에서 강조되고 있는 교육분야의 학예직원 확충은 꼭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주제어 : 박물관, 공립박물관, 전북박물관, 학예직원, 학예사

1. 머리말

현대사회의 대표적 문화시설 중 하나인 박물관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에는 913개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여기에 286개의 미술관을 합하면 전국에 1,199개의 박물관·미술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1]. 그야말로 박물관·미술관 1,000관 시대가 201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913개 박물관을 운영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립박물관 54개관, 공립박물관 389개관, 사립박물관 365개관, 대학박물관 105개관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비율로 정리해보면, 전국의 박물관 중 국립박물관이 약 5.9%, 공립박물관이 약 42.6%, 사립박물관이 약 40.0%, 대학박물관이 약 11.5%로 나타난다[2]. 이는 전국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의 절반 가까이는 국공립박물관이며,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우리나라 박물관 환경에서

1) 문화체육관광부, 2023,『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이하 통계자료 또한 출처를 별도 표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같음을 밝힌다.

2) 박물관은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 박물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박물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 박물관',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 등이 설립・운영하는 '대학 박물관'으로 구분된다.「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4. 5. 17. 시행)」제3조제1항.

공립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공립박물관 현황을 좀 더 살펴보면, 공립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광역지자체") 중에서 공립박물관의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50개 박물관이 운영되는 경기지역이며, 46개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과 경남지역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의 전체 박물관 중에서 공립박물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전체 10개 박물관 중 9개(90%)가 공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78개 박물관 중 46개관(약 59%)이 공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남지역과 전체 43개 박물관 중 25개관(약 58.1%)이 공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북지역, 전체 62개 박물관 중 36개관(약 58.1%)이 공립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남지역이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남지역은 공립박물관의 개수나 비율 모두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지역으로 파악되면서 공립박물관의 역할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 하겠으며, 전북지역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공립박물관의 비율이 높은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공립박물관은 1995년 지방자치제 사회로 전환되면서 각 지역의 물질과 정신, 자연과 물산, 환경과 생태,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미풍양속, 생업기술, 산업자원 등을 중심 주제로,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삶의 질 향상, 생태환경의 보전에 대한 요구로 인해 점진적으로 증대해 왔다[3]. 이처럼 우리나라 전체 박물관 환경에서 공립박물관이 차지하고 있는 수량적 우세가 두드러지고, 양적 팽창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적 발상에 따른 박물관 건립과정이나 부실한 박물관 운영 등에 따른 문제점 등이 주목되면서 공립박물관들은 전체적으로 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박물관 건립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했다면 오늘날 공립박물관들이 지금보다는 훨씬 후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지만, 건립이 완료된 현재의 시점에서 건립 당시의 문제로만 공립박물관의 어려운 현실을 탓하기에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필자가 본 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역에 공립박물관이 건립된 이후 박물관의 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기에 공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다시금 되새겨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박물관 개수과 학예직원 비율,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등 지역간 박물관 현황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전북지역 박물관, 특히 공립박물관이

3) 최종호, 2015,「전북지역 박물관·미술관과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연구」,『박물관학보』 28, 64쪽.

처해 있는 현실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21세기에 들어선 이후 전국의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표 1> 연도별 전국 박물관 수 현황[5]에서 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은 2004년 이후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박물관 수가

〈표 1〉 연도별 전국 박물관 수 현황

구분	합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2004년	289	32	56	116	85
2005년	328	32	69	133	94
2006년	364	29	96	140	99
2007년	431	24	131	169	107
2008년	511	27	225	180	79
2009년	579	27	255	215	82
2010년	630	29	282	234	85
2011년	655	30	289	251	85
2012년	694	30	312	262	90
2013년	740	32	326	287	95
2014년[4]	754	37	328	299	90
2015년	809	39	332	336	102
2016년	826	40	339	351	96
2017년	853	47	341	361	104
2018년	873	49	349	371	104
2019년	881	50	366	363	102
2020년	897	50	380	362	105
2021년	900	51	386	358	105
2022년	909	53	386	364	106
2023년	913	54	389	365	105

4)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행하는『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자료기준일은 2014년 발행자료까지 그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2015년 발행자료부터는 당해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5) 연도별 또는 시기별 전국의 박물관 수는 개별 연구자료별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기도 한데, 본 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발행하는『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증가하면서 전국 박물관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특히 2019년 이후 2023년까지 사립박물관이 2개관 증가하는 등 타 유형의 박물관 증가세가 정체되어 있는 가운데 공립박물관은 23개관이 증가하면서 둔화된 박물관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물관 수 증가세를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모습이다.

이처럼 우리나라 박물관 수 증가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에 대한 연구는 크게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문제점, 개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관련 제기되는 문제점들로는 전문직 박물관장의 부재 및 행정 중심의 조직체계로 인해 박물관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학예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정체성을 반영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점, 예산 및 재정의 결핍으로 인한 박물관 유물수집과 조사연구 활동이 미진하다는 점 등이 꼽히고 있다[6]. 이러한 문제 제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행정조직 중심의 관장은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단지 퇴직하는 행정관료의 보직으로 생각하는 한계를 넘지 못하여 그 활동 영역이 한정된 실정이다. 또한 학예전문인력은 부족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 중 전문인력이 1명뿐이거나 아예 없는 곳도 있는데, 사실상 1~2명으로는 유물관리 이상의 박물관 활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공립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최소 학예인력만을 채용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공립박물관의 운영부실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7]. 이러한 결과로 인해 공립박물관에 대한 지역민의 관심이 부족해지고, 관람객 수 저조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공립박물관의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는 박물관 건립 당시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삼고자 우선 박물관을 짓고 보겠다는 행정중심적인 발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데서 오는 결과라고 보고 있다[8]. 또한 전문인력인 학예사의 채용도 박물관 건립단

6) 곽권희, 2004,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목포인근지역 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수미, 2009, 「지역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해당 지역의 박물관 특화 전략」,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호, 2011, 「우리나라 공립박물관의 현실과 과제」, 『박물관학보』 21; 김종대, 2014,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박물관학보』 26; 이재완, 2022, 「한국 공립박물관 설립의 구조적 난제와 그 해결 가능성 -예천박물관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4.

7) 이재완, 2022, 「한국 공립박물관 설립의 구조적 난제와 그 해결 가능성 -예천박물관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4.

8) 김윤아, 2010, 「공립박물관의 학예전문인력 실태와 쟁점」, 『문화예술경영학연구』 제3권1호.

계가 아닌 운영단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 건립시 대개 전시 전담회사에서 전시기획과 건축공사까지 일괄해서 설립되는 방식을 취하게 되면서, 주로 유물보다는 복제품이 전시될 수 밖에 없는 환경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박물관 건립단계에서부터의 문제로 인해 공립박물관들이 지역 정체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또한 건립 이후 채용된 학예전문인력의 박물관 학예업무 역할은 한정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9]. 여기에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 학예전문인력의 수가 적다 보니 교육분야 전문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 비전공 학예사가 교육까지 떠맡고 있는 실정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10]. 이러한 공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상의 문제점 외에도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은 공립박물관 운영상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제도 개선보다는 공립박물관의 시설 확충을 여전히 우선시 했으며, 공립박물관 확충에만 집중한 나머지 설립 이후 운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박물관 건립 전 타당성 여부를 가려 공립박물관의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사전평가제 또한 건립 이후 자치단체의 계획 이행에 대한 꾸준한 관리와 제재의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1].

이러한 공립박물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개선방안을 종합해보면, 전문직 박물관장 제도 정착과 학예전문인력의 확충 및 신분 안정, 재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지역문화 특성을 활용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구성, 자원봉사자와 도슨트 등의 적극적 활용, 지역사회 또는 박물관 간 협력망 구축, 예산의 독립적인 운영 등을 들 수 있다[12]. 이러한 공립박물관 내부의 개선과 더불어 정책 및 제도적 정비 개

9) 김종대, 2014,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박물관학보』 26.
10) 곽권희, 2004,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목포인근지역 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이재완, 2022, 「한국 공립박물관 설립의 구조적 난제와 그 해결 가능성 -예천박물관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4.
12) 곽권희, 2004, 「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목포인근지역 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규호, 2011, 「우리나라 공립박물관의 현실과 과제」, 『박물관학보』 21; 김종대, 2014,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박물관학보』 26; 이재완, 2022, 「한국 공립박물관 설립의 구조적 난제와 그 해결 가능성 -예천박물관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44.

선도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박물관 운영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재정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의 권고 또는 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13].

한편 전북지역 박물관의 현황과 발전방안을 연구한 사례는 많지 않으나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연구 결과도 확인된다. 먼저 정현정[14]은 전라북도 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사례 및 실태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지역박물관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재정 및 교육 전문인력의 부족, 교육강사 섭외의 한계 등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았다. 이에 지역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박물관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박물관 협력망 구축, 지역사 교육의 활성화, 교육프로그램 유형의 다양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어 김종대[15]는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실상을 살피며, 공립박물관은 그 박물관을 특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내어 지역문화를 특화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학예인력 부족과 박물관장의 행정직 공무원 전담 문제 등을 지적하며, 공립박물관의 질적 향상을 통한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립박물관재단이나 지역박물관공동체 운영, 학예인력의 독립적이고 적정한 채용, 기관장(관장)의 전문성, 예산의 독립적인 운영, 지역민의 대표 문화기관으로서의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최종호[16]는 전북지역 박물관・미술관의 현황을 살피며 전북의 공립박물관 유형을 1) 고고역사박물관, 2) 향토민속박물관, 3) 공예산업박물관, 4) 자연환경박물관으로 분류하였으며, 전주시의 전주역사박물관과 어진박물관, 전주전통술박물관 등에 대한 위탁관리 공모사업이 전주지역의 공립박물관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전북지역 박물관・미술관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관광자원이 풍부한 각 기초지방단체의 박물관・미술관은 지역별 문화관광 연계망 패키지 상품을 통해 7Ps 뮤지엄 마케팅 믹스 전략[17]을 수립하여 체계적·지속적·적극적으로 추진·실행하고, 문화관광자

13) 김규호, 2011, 「우리나라 공립박물관의 현실과 과제」, 『박물관학보』 21.
14) 정현정, 2010, 「전라북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5) 김종대, 2014,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박물관학보』 26.
16) 최종호, 2015, 「전북지역 박물관·미술관과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연구」, 『박물관학보』 28.
17) 뮤지엄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가운데 마케팅 7Ps에 관한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태일은 "박물관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의 Product, 박물관 재정·스폰서쉽·기부금 등의 Price, 지리적 위치·교통관계·공간구성 등의 Place, 촉진계획·광고·홍보·관광상품화 등의 Promotion, 박물관 팜플렛·브로슈어·박물관 소식지 등의 Physicalevidence, 박물관 직원·자원봉사자·이용자의 교육과 의사소통 등의 People, 행사진행·서비스 활

원이 상대적으로 빈곤한 각 기초지방단체의 박물관·미술관은 주제별 문화관광 연계망 패키지 상품을 통해 7Ps 뮤지엄 마케팅 믹스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지속적·적극적으로 추진·실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간 연구자들 통해 공립박물관의 건립과 운영상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은 비교적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가 내부적 문제를 넘어 정책 및 제도 등 외부적 문제의 측면에서도 제기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립박물관의 문제점을 분석함에 있어 지역정체성 정립과 공립박물관 발전을 위한 박물관 내부의 노력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 분석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가 대부분 특정 지역이나 박물관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이들 연구의 한계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종합적인 박물관 여건과 함께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현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그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지의 기반에는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박물관 전문인력의 부족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도표와 통계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최근 도입된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와 인증률에 대한 분석과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예산현황과 관련된 사안도 대략적으로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전북지역 공립박물관들의 현실적 문제와 과제를 대한 시론적 내용을 담아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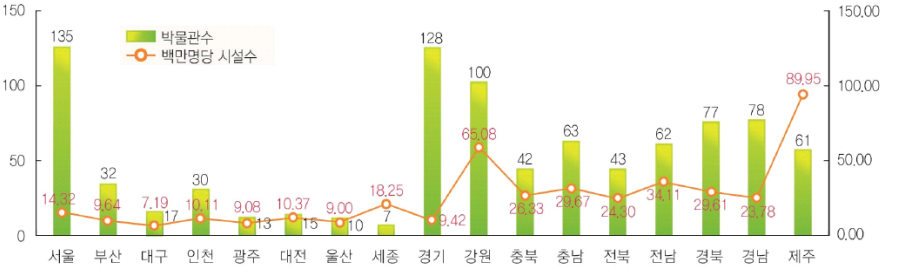
3. 전북지역 박물관 운영여건

이번 장에서는 박물관 수와 학예직원 수를 중심으로 전국의 박물관 현황 속에서 전북지역 박물관이 어떠한 여건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3년 1월 1일 기준 전국에는 박물관 913개관이 있으며, 이를 박물관을 운영형태에 따라 분류하면 국공립박물관 443개관(약 48.5%), 사립박물관 365개관(약 40.0%,), 대학박물관 105개관(약 11.5%)으로

동의 흐름 등의 Process"를 포함한 7Ps박물관 마케팅 믹스 전략을 제시했다. 반면에 최종호는 "볼거리/즐길거리(Product), 입장료/이용료(Price), 장소/공간(Place), 촉진/판매(Promotion)의 4Ps에 이용자/운영자(People), 전시기간/공개시간(Period), 즐거움/흥미(Pleasure)의 3Ps를 덧붙여 7Ps 박물관 마케팅 믹스 전략을 제시했다. 최종호, 2015, 「전북지역 박물관·미술관과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연구」, 『박물관학보』 28, 73~74쪽.

확인되고 있다[18]. 이러한 전국의 박물관 수와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 수를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를 보면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월등한 격차로 제주와 강원지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 수가 가장 적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확인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전북지역은 총 43개의 박물관이 위치하고,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 수가 24.3개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전국 17개소 광역시도 중 재정 및 문화기반여건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비교해보면[19], 충북지역과 함께 전북지역이 가장 적은 박물관 수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 수에서도 경남지역과 함께 전북지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지역별 박물관 수 및 백만명당 박물관 수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23쪽)

이와 함께 재정 및 문화기반여건이 비슷한 위 7개 광역지자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 당 박물관 수를 비교해봐도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표 2>를 보면 전북지역은 14개 기초지자체에 43개 박물관이 있어 기초지자체당 3.07개 박물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22개 기초지자체에 62개소의 박물관이 있어 기초지자체당 2.82개소의 박물관이 있는 전남지역과 함께 기초지자체당 박물관 수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18)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19)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는 다른 7개 광역지자체(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와 재정 및 문화기반여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역간 비교분석을 위해서 여러 면에서 지역여건이 비슷한 7개 광역지자체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2〉 7개 광역지자체의 기초지자체당 박물관 수
(문화체육관광부, 2023,『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기준)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20]	경남
기초지자체수	18	11	15	14	22	23	18
박물관 수	100	42	63	43	62	77	78
기초지자체당 박물관 수	5.56	3.82	4.20	3.07	2.82	3.35	4.33

이렇듯 박물관 수와 관련된 다양한 지표에서 전북지역은 국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박물관 건립여건에서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어 박물관에서 일하는 전문인력, 즉 학예직원의 수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표 3> 지역별 박물관 직원 수 및 학예직원 수를 살펴보면, 전국 박물관 직원 수는 총 10,600명이며, 1관당 평균 11.61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중 박물관 전문인력인 학예직원 수[21]는 총 3,485명으로, 학예직원 비율은 32.9%인 3.82명으로 확인된다. 이를 광역지자체별로 비교해보면, 1개관당 직원수가 가장 많은 곳과 1개관당 학예직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지역으로 나타나며, 1개관당 직원이 가장 적은 곳은 세종지역, 1개관당 학예직원이 가장 적은 곳은 강원과 제주[22]지역으로 파악된다. 이를 종합하여 박물관 직원 수 중 학예직원의 비율을 파악해보면, 학예직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학예직원이 비율이 가장 적은 곳은 제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에서 전북지역 박물관은 1개관당 직원수가 12명으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중상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개관당 학예직원수 3.28명으로 중위권, 학예직원 비율은 27.3%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지표는 재정 및 문화기반여건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와 비교해볼 때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

20) 경북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으나, 이 자료는 2023.1.1. 기준으로 편입 이전 자료이다.

21) 문화체육관광부, 2023,『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서 정리된 '학예직원의 수'는 학예사와 같은 학예전문인력과 기간제근로자와 같이 학예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학예보조인력 등 학예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총수를 가르키는 것으로 파악된다.

22)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인 강원과 제주는 1개관당 학예직원의 수에서는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박물관의 전문성 있는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표 3〉 지역별 박물관 직원 수 및 학예직원 수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단위 : 개관, 명, %)

지 역	박물관 수	총 직원 수	학예직원 수	1관당 직원 수	1관당 학예직원 수	학예직원 비율
서 울	135	3,423	1,201	25.36	8.90	35.1
부 산	32	395	149	12.34	4.66	37.7
대 구	17	178	68	10.47	4.00	38.2
인 천	30	190	92	6.33	3.07	48.4
광 주	13	184	82	14.15	6.31	44.6
대 전	15	118	55	7.87	3.67	46.6
울 산	10	91	27	9.10	2.70	29.7
세 종	7	20	12	2.86	1.71	60.0
경 기	128	924	383	7.22	2.99	41.5
강 원	100	660	156	6.60	1.56	23.6
충 북	42	241	83	5.74	1.98	34.4
충 남	63	753	263	11.95	4.17	34.9
전 북	43	516	141	12.00	3.28	27.3
전 남[23]	62	603	190	9.73	3.06	31.5
경 북	77	945	274	12.27	3.56	29.0
경 남	78	572	206	7.33	2.64	36.0
제 주	61	787	103	12.90	1.69	13.1
합계(평균)	913	10,600	3,485	(11.61)	(3.82)	(32.9)

이는 전북지역의 국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이 전체 관리직원 수에 비해 학예직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지표라 할 수 있으며, 박물관 수에서 보이는 박물관 건립여건과 더불어 낮은 학예직원의 숫자와 비율은 박물관의 전문성 또한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는 근거들이라 할 수 있다.

23) <표 3> 지역별 박물관 직원 수 및 학예직원 수 통계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통계자료를 따랐다. 다만, 전남지역 공립박물관인 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고흥갑재민속전시관의 총 직원 수와 학예인력 수는 동 부처의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통계자료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박물관을 동일부서에서 운영하면서 발생한 데이터 오류로 판단된다. 이에 <표 3>의 전남지역 통계자료는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기반으로 일부 『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보정하였으며, 연동된 합계(평균) 또한 보정된 것임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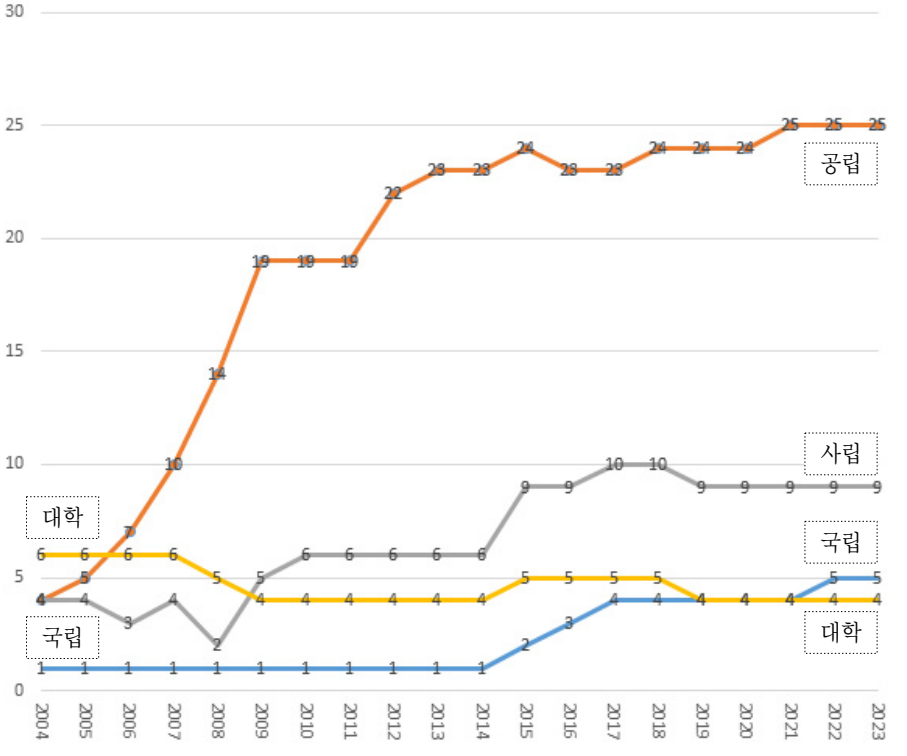
4.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현황 분석

1) 공립박물관 현황

이 절에서는 전북지역 박물관 중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와 14개 시군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전북지역에는 국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대학박물관 등 모두 43개의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공립박물관은 25개관으로 파악되고 있다[24].

〈표 4〉 운영주체별 전북지역 박물관 수와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구분	계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수	43	5	25	9	4
비율(%)	100	11.63	58.14	20.93	9.30



〈그림 2〉 전북지역 운영주체별 박물관 수 변화양상

24)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602~6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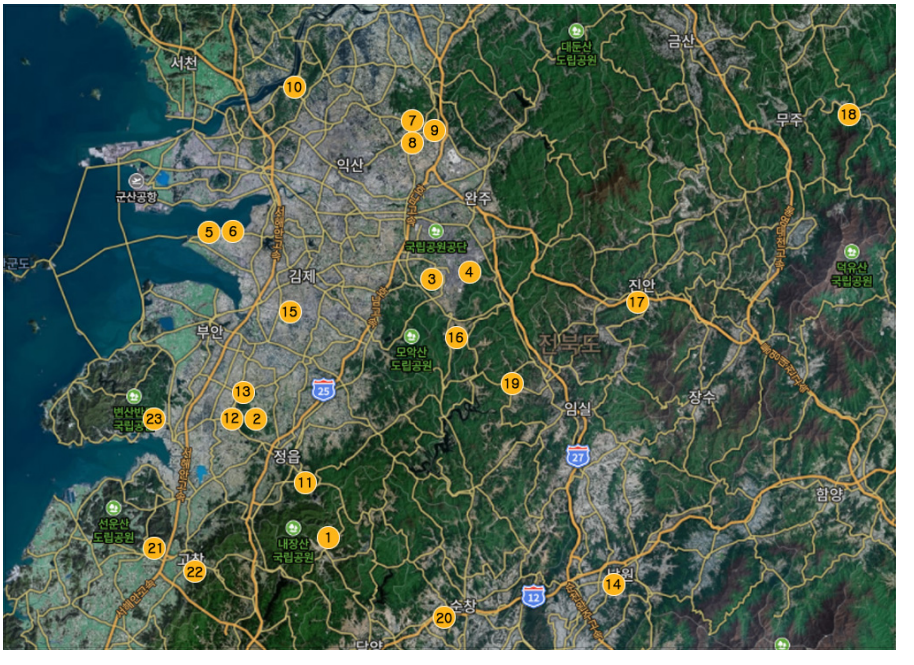
<그림 2> 전북지역 운영주체별 박물관 수 변화양상[25]을 보면 2004년 4개관에 불과하던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수는 2007년 10개관이 되며 첫 두자리 수에 이르게 되고, 2012년에는 2배가 넘게 성장하면서 22개관이 운영된다. 이로써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은 20개관을 넘기게 되면서 불과 8년 사이에 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2021년 25개관으로 정점을 찍으면서 2023년까

〈표 5〉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현황(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연번	<그림3> 번호	관할 지자체	박물관명	등록연도	전시실 면적(㎡)	연관람인원 (명)
1	①	전북자치도	전북산림박물관	2012년	3,759	60,303
2	②	전북자치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2012년	1,572	31,063
3	③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2002년	641	64,554
4	④	전주시	어진박물관	2011년	624	271,370
5		전주시	전주전통술박물관	2008년	238	702,790
6	⑤	군산시	군산근대역사박물관	2011년	1,875	265,790
7	⑥	군산시	일제강점기군산역사관	2020년[26]	1,266	22,377
8	⑦	익산시	마한박물관	2013년	821	34,560
9	⑧	익산시	백제왕궁박물관	2008년	1,172	122,404
10	⑨	익산시	보석박물관	2006년	2,616	54,367
11	⑩	익산시	입점리고분전시관	미등록	648	4,680
12	⑪	정읍시	정읍시립박물관	2013년	682	20,106
13	⑫	정읍시	고부역사문화관	미등록	269	120
14	⑬	정읍시	백정기의사기념관	미등록	151	7,742
15	⑭	남원시	남원향토박물관	2006년	476	45,591
16	⑮	김제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2006년	1,231	13,559
17	⑯	완주군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2015년	2,718	40,304
18	⑰	진안군	진안역사박물관	2012년	559	10,346
19		진안군	진안가위박물관	2017년	261	14,203
20	⑱	무주군	무주곤충박물관	2017년	4,103	91,881
21	⑲	임실군	신평생활사박물관	미등록	185	2,000
22	⑳	순창군	순창장류박물관	2013년	648	13,504
23	㉑	고창군	고창고인돌박물관	2018년	1,516	149,008
24	㉒	고창군	고창판소리박물관	2005년	1,064	9,799
25	㉓	부안군	부안청자박물관	2011년	1,291	45,428

25)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매해 발간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지 유지되고 있는 양상이다. 전북지역 박물관 중 공립박물관의 비중은 2004년 약 26.7%에 머물렀으나, 2008년 이후 60%이상 비중을 유지하다가 2023년 약 58.1% 비중을 차지하며 전북지역 박물관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고, 동시에 그 수의 성장세에 있어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림 3〉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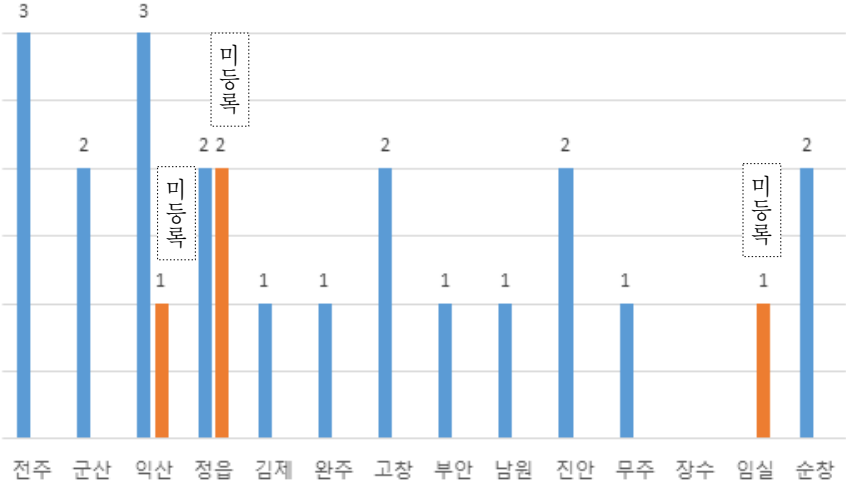
이러한 전북지역의 공립박물관들은 다양한 유형과 주제로 분류될 수 있다. 전주역사박물관이나 정읍시립박물관, 진안역사박물관처럼 지역의 역사문화를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박물관이 있는 반면,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백제왕궁박물관, 고창고인돌박물관처럼 위치한 지역의 주요 유적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박물관도 있으며, 고창판소리박물관, 보석박물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처럼 특정주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박물관이 있기도 하다.

<그림 3>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분포도를 살펴보면,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지역적 분포를 알 수 있는데, 동부지역에 비해 서부지역에 공립박물관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전북 서부지역은 평야지대이자 도심지역으

26)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등록연도는 이전에 발간된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자료와 보도자료 내용을 참조하여『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자료와 달리 수정표기하였다.

로, 전북지역 인구의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인 것에 반해, 동부지역은 대다수가 산림지역이자 농촌지역으로, 인구 2만 4~5천 내외의 소규모 시군 다수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자연히 서부지역과 동부지역 지자체의 재정여건 및 문화향유 여건 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환경적 차이는 결국 전북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공립박물관 분포현황의 차이라는 결과를 불러왔다고 판단된다.

좀 더 세부적으로 전북 동부지역과 서부지역 공립박물관 분포양상에 대해 살펴보면, 서부 도심지역인 전주, 군산, 익산, 정읍지역에 다수의 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조선왕조의 본향이자 전통문화의 도시 전주와 백제 고도지역인 익산에는 등록공립박물관이 각각 3개관씩 운영되고 있어 전북지역 시군 중 가장 많은 등록공립박물관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통의 역사문화도시임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반면, 동부 산간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으며, 특히 공립박물관이 존재하지 않거나[27], 미등록 박물관만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비단 숫자의 차이를 넘어서서 주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한 기회 제공의 차이,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여건의 차이 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 전북지역 시군별 공립박물관 수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

27) 본 고에서 다루는 주요 통계자료인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의 기준일인 2023.1.1.일 이후 장수군 최초의 등록박물관이자 유일한 공립박물관인 장수역사전시관이 2023.9.15. 개관하였다.

2) 공립박물관 운영여건

이번 절에서는 전국의 공립박물관 현황 속에서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이 어떠한 여건에 놓여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표 6>의 지역별 공립박물관 직원 수 및 학예직원 수를 살펴보면[28], 전국 공립박물관 389개관의 직원 수는 4,163명이며, 이중 박물관 전문인력인 학예직원 수는 1,331명이다. 또한 공립박물관 1관당 평균 직원 수는 10.7명이며, 1관당 평균 학예직원 수는 3.4명으로, 학예직원의 비율이 약 32%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공립박물관 현황을 광역지자체별로 비교해보면, 1개관당 직원 수와 1개관당 학예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지역으로 나타나고, 1개관당 직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지역, 1개관당 학예직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세종, 강원, 충북지역으로 파악된다.

이어 <표 7>의 지자체 권역에 따른 공립박물관 직원 수 및 학예직원 수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7개 광역지자체에서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립박물관에 비해 1개관당 직원 수가 2배 이상 많으며, 1개관당 학예직원 수에서도 3배 이상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 직원 수에서 학예직원이 차지하는 비율에서도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경기도 등의 광역지자체들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의 7개 광역지자체보다 재정 및 문화기반여건 등에서 크게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실적인 공립박물관간 규모의 격차라고 볼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 거대 광역지자체들이 그 위상에 걸맞는 공립박물관 건축규모와 인력규모, 전문성까지 갖추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8) 앞서 밝힌 <표 3> 통계자료와 같이 전남지역 통계자료는『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자료를 기반으로 일부『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통계자료를 참고하여 보정하였으며, 연동된 합계(평균) 또한 보정된 것임을 밝힌다.

〈표 6〉 지역별 공립박물관 직원 수 및 학예직원 수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기준) (단위 : 개관, 명, %)

지 역	박물관 수	총 직원 수	학예직원 수	1관당 직원 수	1관당 학예직원 수	학예직원 비율
서 울	23	890	332	38.7	14.4	37.3
부 산	11	219	62	19.9	5.6	28.3
대 구	7	71	20	10.1	2.9	28.2
인 천	16	148	68	9.3	4.3	45.9
광 주	3	56	18	18.7	6.0	32.1
대 전	4	79	34	19.8	8.5	43.0
울 산	9	87	26	9.7	2.9	29.9
세 종	2	7	3	3.5	1.5	42.9
경 기	50	562	238	11.2	4.8	42.3
강 원	46	337	70	7.3	1.5	20.8
충 북	24	132	36	5.5	1.5	27.3
충 남	30	201	73	6.7	2.4	36.3
전 북	25	212	46	8.5	1.8	21.7
전 남	36	291	59	8.1	1.6	20.3
경 북	41	388	116	9.5	2.8	29.9
경 남	46	273	95	5.9	2.1	34.8
제 주	16	210	35	13.1	2.2	16.7
합계(평균)	389	4,163	1,331	(10.7)	(3.4)	(32.0)

〈표 7〉 지자체 권역에 따른 공립박물관 직원 수 및 학예직원 수 (단위 : 개관, 명, %)

지 역	박물관 수	총 직원 수	학예직원 수	1관당 직원 수	1관당 학예직원 수	학예직원 비율
서울 6대 광역시 경기도	123	2,112	798	17.2	6.5	37.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북, 경남	248	1,834	495	7.4	2.0	27.0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북지역의 공립박물관 여건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제반 여건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 공립박물관과 비교분석을 하여야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표 6>의 지표에서 전북지역과 함께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북, 경남지역 공립박물관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공립박물관 수에서 충북과 함께 전북이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유물수집과 전시, 조사·연구와 교육·체험 등을 담당하며 박물관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학예직원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면, 1관당 학예직원 수가 많은 지역은 평균 2.0명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북(2.8명), 충남(2.4명), 경남(2.1명)이었으며, 1관당 학예직원 수가 적은 곳은 평균 2.0 이하로 확인되는 전북(1.8명), 전남(1.6명), 강원(1.5명), 충북(1.5명)이었다. 또한 1관당 학예직원 비율이 비교적 높은 곳은 충남(36.3%), 경남(34.8%), 경북(29.9%), 충북(27.3%)으로 나타났으며, 1관당 학예직원 비율이 비교적 낮은 곳으로는 전북(21.7%), 강원(20.8%), 전남(20.33%)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열악한 공립박물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이들 7개 광역지자체권 중에서도 박물관 전문인력인 학예직원과 관련된 지표, 즉 학예직원 수와 비율에 있어서 모두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 전북, 전남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3개 광역지자체의 공립박물관은 학예직원이 채 2명이 되지 않으며, 학예직원 비율도 21% 내외에 그치고 있어 열악한 학예인력 현황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학예직원의 중요성을 타 지역에 비해 낮게 평가하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지표라 생각된다.

3)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인증률

이렇게 종합적인 공립박물관 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으로 평가되는 전북지역 공립박물관들이지만,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결과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을 통해 시행된 공립박물관 평가제도인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그 설립 및 운영 주체인 지자체와 지역사회로부터 제공받고 있는 공립박물관이 건립 난립과 운영 부실이라는 여러 비판에 직면하면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 박물관에 대한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행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평가인증제의 평가 지표는 크게 5가지인데, 우선 설립 목적의 달성도는 체계적인 운영 계획 수립, 운영 형태에 관한 평가이다. 두 번째로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은 박물관장 전문성, 적정한 조직 및 인력 관리, 효과적인 재정 관리, 안전한 시설

관리(전시, 수장, 소방 등)등에 관한 평가이다. 세 번째로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그리고 연구에 관한 평가이다. 네 번째로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은 전시 사업과 교육 및 체험 사업의 성과 실적에 대한 평가이다. 마지막으로 공적 책임은 관람객 확보 노력과 상생협력 그리고 법적 책임 준수에 대한 평가이다.[29]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2017년도 처음 평가가 실시된 이후 2019년과 2022년, 지금까지 총 3차례 평가가 진행된 바 있으며, 그 결과는 <표 8>[30]과 같다.

〈표 8〉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현황

구 분	전국 공립박물관			전북 공립박물관		
	평가 박물관 수	인증 박물관 수	인증률(%)	평가 박물관 수	인증 박물관 수	인증률(%)
2017년	190	123	64.7	16	14	87.5
2019년	227	157	69.2	17	14	82.4
2022년	272	140	51.5	20	11	55.0

전국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실시한 평가인증 결과 인증률은 2017년 64.7%, 2019년 69.2%로 나타나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22년 평가인증 결과에서는 51.5%의 인증률을 보여 앞선 두 차례의 평가에 비해 인증률이 대폭 하락한 모습이다. 이는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인증률에서도 그대로 확인되는 바로, 2017년과 2019년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평가인증제 인증률은 87.5%와 82.4%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2022년 평가결과 인증률이 55%로 대폭 하락한 모습을 역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국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인증률보다 전북의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인증률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이어 가장 최근 평가자료인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결과에 대

29) 태지호, 2023,「지역 공립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접근」-박물관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중심으로,『지역과 혁신』제2권제1호, 2~4쪽.

30)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52호 <2017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우수인증기관 선정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0-0186호 <2019년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인증기관 선정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0092호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수정 공고

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평가대상인 272개 박물관 중 약 51.5%에 해당하는 140개 박물관이 인증기관에 선정되었는데.[31] 평가인증 결과를 전국 광역시도별로 비교해보면 <표 9>[32]와 같다.

〈표 9〉 광역지자체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현황(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평가기관	15	8	7	14	3	4	7	44
인증기관	13	5	5	7	2	4	6	30
인증률	86.7%	62.5%	71.4%	50.0%	66.7%	100%	85.7%	68.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평가기관	34	9	19	20	25	23	30	9
인증기관	12	3	6	11	10	7	13	6
인증률	35.3%	33.3%	31.6%	55.0%	40.0%	30.4%	43.3%	66.7%

위 <표 9>를 보면,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인증률이 높은 지역은 대전(100%), 서울(86.7%), 울산(85.7%), 대구(71.4%) 등의 순서로 확인되며, 평가대상 박물관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68.2%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인증률이 낮은 지역은 경북(30.4%), 충남(31.6%), 충북(33.3%), 강원(35.3%) 등의 순으로 확인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광역지자체의 인증률이 다른 소규모 광역지자체의 인증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등 6대 광역시, 수도권인 경기도 등 지자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는 8개 광역시도의 경우 총 102개 박물관을 평가하여 그중 72개 박물관이 인증기관에 선정되어 약 70.6%의 인증률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앞선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자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는 7개 광역시도에서는 160개 박물관 중 62개 박물관이 인증기관에 선정되어 약 38.8%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 다만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인증률은 55.0%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시도 중에서 월등히 우수한 인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전북지역 공립박물관들이 앞선 세 차례의 평가에서도 전반적으로 우수한 인증률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1)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3 - 0092호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수정 공고
32)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대상 박물관이 1곳에 불과하여 통계적 의미가 미비하다고 볼 수 있어 광역지자체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 현황자료에서 제외하였다.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열악한 운영여건에 반해 우수한 인증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전북지역 박물관 직원들과 전문인력들이 노력한 결과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5.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문제점 및 과제

지금까지 살펴본 전북지역 박물관과 공립박물관 현황을 되새겨보면, 재정 및 문화기반여건 등이 비슷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를 비교해볼 때, 국공립·사립·대학박물관을 포함한 전체 박물관 수와 관련된 통계에서 7개 광역지자체 중 충북과 함께 가장 적은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남지역과 함께 인구 백만명당 박물관 수도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 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지자체당 박물관 수도 전남지역과 함께 가장 적은 지역으로 파악되었으며, 박물관 학예직원 수와 비율에 있어서도 중하위권으로 나타났다.

이어 살펴본 전북의 공립박물관 여건 또한 마찬가지였다. 비교적 제반여건이 유사하다 할 수 있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광역지자체의 공립박물관 간의 운영여건을 분석해보면, 전북지역은 공립박물관 수와 1관당 학예직원 수, 1관당 학예직원 비율 모두에서 전반적으로 하위권에 속하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표와 통계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실 공립박물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다수의 박물관을 1관당 1명의 학예직원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박물관 정책이 가는 것보다는 1개의 박물관을 운영하더라도 최소 3명 이상의 학예직원이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박물관 정책이라는 지론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 때문에 필자가 주목하고 있는 지표는 박물관 수 보다는 공립박물관 1관당 학예직원 수와 학예직원 비율이다.

이와 관련된 논지를 펴기 전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박물관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에서는 "박물관은 유무형 유산을 연구·수집·보존·해석·전시하여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 영구 기관이다. 박물관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 이용하기 쉽고, 포용적이어서 다양성과 지속 가능성을 촉진한다. 박물관은 공동체의 참여로 윤리적,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소통하며, 교육·향유·성찰·지식공유를 위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다[33]. 또한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에서는 “박물관은 사회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중에게 개방되는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으로서, 학습과 교육, 위락을 위하여 인간과 인간의 환경에 대한 유형·무형의 증거를 수집, 보존, 연구, 교류, 전시한다.”고 정의하고 있다[34].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박물관 관련 규정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는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35].

이들 박물관의 정의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박물관의 역할은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 이며, 그 대상이 되는 자료는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형 및 무형의 유산[36]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의 수집, 보존, 연구, 전시 업무는 박물관에서 누가 수행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이는 박물관 전문인력인 학예직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학예사가 해야할 역할이다.

그렇다면 박물관에서 학예직원이 아닌 직원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정직원은 공립박물관이자 행정기관으로서 박물관에서 능히 이루어져야 할 예산회계와 서무 등의 다양한 행정요소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며, 시설직원은 박물관 하드웨어 유지관리와 개선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 또한 방호 및 안내직원 등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박물관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함과 동시에 박물관의 유물과 자산 등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는 업무를 책임져야 할 것이며, 여기에 사서직원이 있다면 박물관 도서자료 등에

33)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https://icomkorea.org/icom-info (검색일: 2024. 12. 22.)

34) ICOM 한국위원회·국립민속박물관, 2007,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14쪽.

35) 국가법령정보센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 2024. 5. 17.)」 https://www.law.go.kr (검색일: 2024. 8. 8.)

36) 인간과 환경에 대한 유형 및 무형의 유산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한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대한 관리가 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 홍보담당직원이 있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박물관에는 학예직원을 제외하고도 많은 직원들이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고, 각자 그 역할을 완벽히 수행해 낼 때 우수한 박물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살펴본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 박물관의 핵심역할을 학예직원이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학예직원의 역할수행이 없다면 그 시설을 박물관이라 칭할 수도 없을 것이다. 혹자는 이러한 학예직원의 역할을 다른 직원들이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학예직원이 없는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예직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학예사 자격증 제도[37], 그 중에서도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자격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한다. 3급 정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 중 한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 세가지 요건은 1)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뒤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4년 이상인 자 이다. 여기서 경력인정대상기관이라 함은 등록된 국공립박물관이나 심사를 통해 인정된 사립박물관 및 대학박물관 등을 말한다[38]. 박사학위나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은 박물관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의 전문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학문수행 과정이 될 것이며[39],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및 재직경력은 학문적 역량 외에도 유물관리나 전시 등 박물관에서의 실무적인 역할을 경험해야지만 학예사, 즉 박물관 전문직원으로의 역할이 수행가능하다는 제도적 규정사항인 것이다. 이러한 학문수행과정과 실무적 경험 없이 박물관 전문직원으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학예직원 수와 비율은 바로 박물관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 공립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

37) 학예사 자격증 제도의 자격명칭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로,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3급 정학예사 자격증 또는 준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을 더하여 2급 정학예사, 1급 정학예사로 승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38)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사 자격증 제도 안내 https://www.museum.go.kr (검색일: 2024. 8. 8.)

39)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학예사 시험이라는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는 하드웨어에만 집중한 나머지 건립 계획 당시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하고 시설관리 위주의 활발하지 못한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설립·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비전문가인 관장과 행정직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전문인력 구성과 조직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더군다나 행정경험이 일천한 소수 인원의 학예직 공무원들은 해당분야의 전문분야 업무보다는 일반 행정업무 위주의 전체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워지고 있다[40].

전북지역 박물관 사례를 보더라도 25개소의 공립박물관 중 학예직원이 없는 곳이 6곳이었으며, 특별전시를 하지 않은 곳이 4곳, 교육프로그램 운영하지 않는 곳이 6곳으로 파악되었고, 이들 박물관 중 학예직원도 없으며, 특별전도 하지 않고, 교육운영도 하지 않는 곳은 총 4곳이었다[41]. 이들 박물관은 모두 미등록 박물관으로, 학예직원이 없다는 것은 이미 앞서 서술한 박물관의 전문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제로도 학예직원의 역할인 전시와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학예직원 1명이 있는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것은 사실상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등록을 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42]. 그렇기 때문에 공립박물관 1개관에 1명의 학예직원이 있는 경우 학예직원은 형식적인 인원으로 보이는 것이며, 이들 박물관의 경우 대개 일반직이나 청원경찰 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43].

이러한 학예직원의 인력 보충 필요성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아직도 지역 공립박물관의 학예직원은 부족하기만 하다. 그렇다면 박물관의 운영에 있어 몇 명의 학예직원이 필요한가 라는 점도 검토할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전북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공립박물관의 내실 있는 발전과 충실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예직 공무원이 공립박물관 1개관당

40) 장원익, 2009, 「지역박물관 학예연구직 운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쪽
41) 문화체육관광부, 2023, 『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4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박물관을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1명 이상의 학예사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3) 김종대, 2014,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박물관학보』 26, 49쪽

평균 3명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UNESCO(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ICOM(국제박물관협의회)에서는 350~500㎡ 이내의 전시실 1개 당 1명 이상의 전문 전시·교육인력 할당을 권장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박물관의 학예인원 보유현황은 국제 수준의 1/3 정도 수준이라는 연구자료가 있어 주목된다[44].

이러한 기준을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현황에 적용해보면, 전북지역 25개 공립박물관의 전시실 면적의 합계는 총 30,387㎡로 파악되며, UNESCO와 ICOM의 권장기준을 준용하여 350~500㎡의 전시면적당 1명의 학예직원 수를 적용할 경우 61~87명의 학예직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선 <표 13> 지역별 공립박물관 직원 수 및 학예직원 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총 학예직원 수는 46명으로 조사됨에 따라 국제권장기준에 한참 모자란 수준임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라 필요한 학예직원수 61~87명을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25개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1개관 당 2.4~3.5명이 필요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는데, 이는 필자가 공립박물관 1개관 당 평균 3명의 학예직원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지만 필자는 학예직원의 수가 곧 박물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수단이라는 점을 상기했으면 한다.

이러한 학예직원의 수 증대 이슈 외에도 또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어떤 전문분야의 학예직원들로 박물관을 구성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필자는 박물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학예직원 1명은 필히 참여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물관 교육 분야는 최근 박물관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사회적으로도 점차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정을 들 수 있다. 이는 어린이·청소년 등 젊은 층에 대한 교육 뿐만 아니라 점차 노령세대가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성인 및 노인층에 대한 교육도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교육은 학교교육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젊은 세대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기성세대나 노령세대를 위한 교육기관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박물관이 중심 기관이 되어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지역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교육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즉 무슨 콘텐츠를 개발해서 이들에게 학습시키는 것이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찾아내 이를 교육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

44) 여수시·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 182쪽.

며, 이 작업은 결국 박물관 교육을 담당하는 학예직원의 몫일 수 밖에 없다[45]. 그러나 아직도 학예직원 1명이 박물관의 모든 핵심역할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학예직원 배치는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독창적이며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은 예상할 수 있고 유사 프로그램의 범람을 초래할 수 있다[46].

이러한 학예인력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공립박물관의 핵심적인 전문분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1개 공립박물관 당 3명의 학예직원이 꼭 필요한 실정이며, 이들 학예직원 중에서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박물관의 사회적 교육 역할 수행을 위해서 박물관 교육 학예직원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 살펴본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학예인력 문제와 더불어 짚어야 할 또 다른 주요 문제점은 박물관 재정, 즉 예산여건이라 할 수 있다. 공립박물관의 재정은 해당 지자체의 예산 배정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박물관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의 확보 역시 그리 녹록치 않은 형편이다. 박물관의 전문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예산분야로는 전시, 유물수집(구입), 보존처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세부분야별로 살펴보면 전시분야 예산은 대외적인 성과 및 홍보와 관련되어 있어 대부분의 공립박물관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확보되고 있는 예산분야라 할 수 있다. 다만 박물관 별로 그 편차가 심하여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경우 약 1억 6천만원, 1억 1천만원의 연간 전시예산을 확보한 박물관이 있는가 하면, 2천만원 이하의 전시예산으로 1년을 운용해야 하는 박물관도 있으며, 전혀 전시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박물관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박물관 유물수집·관리와 관련된 유물구입 예산이나 유물 보존처리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그 열악함이 더욱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시예산은 박물관의 다양한 사업 중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대표적 사업으로, 지자체에서도 비교적 폭 넓게 인지하고 있는 예산분야라 할 수 있으나, 박물관 내실을 다지는 분야이자 대외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역할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의 공립박물관에서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예산분야의 대표적인 것이 유물구입과 보존처리 예산이라 할

45) 김종대, 2014,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박물관학보』 26, 56쪽.

46) 정현정, 2010, 「전라북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1쪽.

수 있는데,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에서 유물구입 예산을 확보한 박물관은 25개관 중 채 10개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그 금액도 적어 대부분 1천만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유물의 항구적인 보존과 손상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박물관 유물 보존처리와 관련된 예산 역시 2024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중 3개관만이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모습이다[47].

이렇듯 공립박물관의 필수사업분야 예산의 확보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역시 명쾌하게 내려지기 어려운 주제라 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해당분야 박물관 사업의 성과와 효용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역주민과 지자체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실제로 진안역사박물관에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 구성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 주제인 도통리 청자요지, 임진왜란 웅치전투 등을 테마로 전시를 기획하면서 지자체 구성원 등과 적극 소통함으로서 해당 전시예산을 진안역사박물관 매년 평균 전시예산의 2배 이상으로 확보하여 추진한 바도 있다. 이러한 단기적 예산대응 외에 장기적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국도비 지원금 확보방안, 관람료 및 상품판매수입 확충 등을 통한 자체재정 확대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겠으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향후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6. 맺음말

이상 전북지역 전체 박물관과 공립박물관의 개수와 학예인력을 중심으로 운영현황 분석하고,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전북의 박물관 운영여건은 타 광역지자체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전북지역의 공립박물관도 이와 마찬가지로 비교적 적은 학예직원 수와 학예직원 비율을 갖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학예직원 수와 비율의 저조한 지표는 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북지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태조

47) 전북지역 공립박물관 예산현황 분석은 필자가 각 공립박물관 운영 지자체의 홈페이지 재정공시 자료 등을 통해 확인한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분석하여 파악한 것임을 밝힌다.

이성계와 경기전(어진), 후백제와 가야 관련 문화유산, 동학농민혁명이나 마한 관련 역사문화, 임진왜란(정유재란) 관련 이야기 등 이미 널리 알려져 있거나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잠재력 높은 역사문화 콘텐츠가 많이 내재되어 있는 곳이다. 다른 지역에 못지않은 이러한 문화자산을 갖고 있기에 이들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립박물관의 역할도 잘 수행해 낸다면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더욱이 앞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전북지역 공립박물관들은 2022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비슷한 여건의 타 지역에 비해 우수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표는 전북지역 공립박물관과 학예직원들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음은 물론, 잠재적인 역량이 우수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공립박물관의 발전을 위한 과제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학예직원의 확충이다. 이는 필자의 주장일 뿐만 아니라 공립박물관 활성화를 주제로 다루고 있는 다수 논문의 공통된 요지이기도 하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공립박물관은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관은 박물관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박물관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물론 박물관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야 지역의 공립박물관이 올바른 역할을 수행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접수일: 2024. 11. 14. / 심사개시일: 2024. 11. 28. / 게재확정일: 2024. 12. 24.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곽권희, 2004,「지역박물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 -목포인근지역 공립박물관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국립민속박물관, 2007,「국제박물관협의회(ICOM) 박물관 윤리강령」

김규호, 2011,「우리나라 공립박물관의 현실과 과제」,『박물관학보』21, 한국박물관학회, 37-56쪽.

김수미, 2009,「지역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해당 지역의 박물관 특화 전략」,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윤아, 2010,「공립박물관의 학예전문인력 실태와 쟁점」,『문화예술경영학연구』제3권1호,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38-47쪽.

김종대, 2014,「전북지역 공립박물관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박물관학보』26, 한국박물관학회, 39-58쪽.

문화체육관광부, 2022,『2022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_____, 2023,『2023년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여수시·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여수시립박물관 건립 기본계획수립용역』.

이재완, 2022,「한국 공립박물관 설립의 구조적 난제와 그 해결 가능성 -예천박물관 설립 사례를 중심으로」,『박물관학보』44, 한국박물관학회, 149-179쪽.

장원익, 2009,「지역박물관 학예연구직 운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현정, 2010,「전라북도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전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종호, 2015,「전북지역 박물관·미술관과 문화관광 홍보 마케팅 연구」,『박물관학보』28, 한국박물관학회, 63-83쪽.

태지호, 2023,「지역 공립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접근: 박물관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중심으로」,『지역과 혁신』제2권 제1호, 안동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1-12쪽.

2.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국립중앙박물관 https://www.museum.go.kr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한국위원회 https://icomkorea.org

<Abstract>

Current Status and Future Tasks of Public Museums in Jeonbuk Region

Uhm, Ki il*

Of the 913 museums nationwide in 2023, 389 are public museums, accounting for about 42.6%. The proportion of public museums in Korea's museum environment is by no means small.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what conditions public museums in Jeonbuk are in by comparing and analyzing various museum statistics, and I would like to suggest ways to improve related problems.

First, if you compare seven metropolitan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angwon, Chungbuk, Chungnam, Jeonbuk, Jeonnam, Gyeongbuk, and Gyeongnam, which have similar financial and cultural infrastructure conditions among 17 metropolitan cities nationwide. Not only does it have the smallest number of museums along with Chungbuk, but it also has the smallest number of museums per million people, along with Gyeongnam, and the number of museums per basic local government is the smallest along with Jeonnam.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curatorial staff per museum is in the middle and the ratio of curatorial staff is in the lower part, showing that the overall museum construction conditions in the Jeonbuk region are inferior to other regions.

In terms of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25 public museums in Jeollabuk-do, Jeonbuk, along with Chungbuk, was the smallest in the number of public museums. and The number of curatorial staff per museum and the ratio of curatorial staff are also found to be in the middle and lower ranks, and the poor current status of curatorial staff in public museums in Jeonbuk region can be confirmed. However, even under such poor operating conditions, the certification rate of the public museum evaluation and certification system is relatively excellent, which is also noteworthy.

Under these condition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museums in Jeonbuk region is the expansion of curatorial staff. The development

* Curator, Jinan History Museum

of public museums can only be achieved by expanding curatorial staff who play a key role in the museum, such as collection, preservation, research, exhibition, and education. In order to facilitate this role, there should be an average of three curatorial staff per public museum. In particular, it is considered essential to expand the number of curatorial staff in the field of education, which has recently been emphasized in the role of museums.

Key Words : Museum, Public museums, Museum in Jeonbuk region, Curatorial staff, Cutaor